



2016 리우 하계올림픽을 30일 앞둔 5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왼쪽부터 남학생과의 연습 경기에서 한판승을 따낸 유도 김잔디,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는 역도 윤진희, 훈련중인 배드민턴 이용대 선수. /연합뉴스

이 땀방울...보석 되어 빛나리

리우올림픽 D-30
태극전사 필승 다짐



한국, 금메달 10개·종합 순위 10위 목표
23개 종목 210여명...32년만에 최소 규모

대한체육회는 5일 서울 노원구 태릉선수촌에서 '2016 리우하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 행사'를 열고 올림픽을 앞둔 국가대표 선수단의 각오를 전했다. 이날 미디어데이에 김정행·강영중 체육회 공동회장과 정몽규 선수단장, 조영호 체육회 사무총장, 최종삼 태릉선수촌장과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들이 참석했다. 정몽규 선수단장은 "우리 대표 선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국민의 관심과 성

원이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은 올림픽을 목표로 매일 자신의 한계에 도전하며 훈련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고 국민적 관심을 당부했다. 배드민턴 이용대는 "남자복식에서 꼭 금메달을 따겠다"고 말했다. 이용대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2012년 런던에서는 남자복식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리우대회를 '마지막 올림픽'으로 정

한 이용대는 "2년 동안 세계랭킹 1위를 유지하고 리우에 간다. 일단 1차 목표는 달성했다"며 "남은 30일 동안 잘 준비해서 꼭 금메달을 목에 걸겠다"고 다짐했다. 올림픽 금메달을 바라보고 한국행을 택한 남자 유도 73kg급 '재일교포 3세' 안창림의 목표는 "나는 일본에서 왔다.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일본의 귀화 요청도 뿌리치고) 한국에 왔다"로 짧고 굵았다. 2012년 런던에 이어 올림픽 2개 대회 연속 2관왕을 꿈꾸는 여자 양궁 기보배는 "런던에서는 바람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리우에서는 바람 걱정이 없다. 리우가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내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낸 뒤, 2012년 은퇴를 했다가 다시 역기를 든 여자 역도 윤진희에게는 리우올림픽이 더 특별하다. 윤진희의 남편 원정식도 여자 대표로 리우 땅을 밟는다. 윤진희는 "올림픽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영광"이라며 "남편도 선수 개인으로 올림픽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한다"고 했다. 1972년생으로 한국 대표팀 최고령 선수인 여자 핸드볼의 오영란은 "리우는 목표이자 희망이다. 마지막 올림픽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했다.

한편 선수단 결단식은 19일에 열리며 선수단 본단은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27일 출국한다. 우리나라는 8개 종목 가운데 21개 종목에서 194명이 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복싱은 신종훈과 함상명이 마지막 올림픽 선발대회 관문을 남기고 있다. 농구와 테니스, 럭비, 트라이애슬론 등 4개 종목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불참이 확정돼 우리나라는 이번 대회에 복싱이 출전권을 따낼 경우 최대 24개 종목, 그렇지 못하면 23개 종목에 약 210명 정도의 선수를 파견하게 될 전망이다. 210명의 선수단 규모는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이후 하계 대회로는 최소 규모다. /연합뉴스

장마철인데...좌완 갈증 해소 언제쯤

KIA, 심동섭 등 7명 평균 자책점 6.53·볼넷 남발
임기준 등 3명 1군서 생존...이준영 활약 위안거리



올 해도 KIA 타이거즈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

'좌완 찾기'는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KIA의 숙명 같은 고민이다. 올 시즌에는 일단 물량 공세를 통해 1차 검증을 끝냈다.

2016시즌 1군 기록을 남긴 KIA의 좌완은 양현종을 빼고 김명찬, 심동섭, 유창식, 이준영, 임기준, 정동현, 정용운 등 7명이다. 처음 1군 무대를 밟은 인물은 대졸 2년 차 이준영과 고졸 루키 정동현 두 명. 선발로 긴 이닝 테스트를 받은 인물은 이준영, 임기준, 정동현, 정용운 등 4명이다.

양현종이 책임진 106.1이닝을 빼고 올 시즌 KIA의 558.1이닝 중 102이닝을 7명의 좌완이 소화했다. 성적은 119피안타(8피홈런) 78볼넷 57탈삼진 74자책점이다. 평균자책점은 6.53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볼넷이다. 유일하게 볼넷보다 탈삼진이 많은 인물은 심동섭이다. 15개의 볼넷을 기록하는 동안 탈삼진은 24개를 뽑아냈다. 하지만 필승조로서 결정적인 순간에 짧은 이닝을 소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심동섭의 볼넷이 아쉽다.

가장 빠른 공을 보유한 유창식은 1번의 등판에서 1.1이닝 6볼넷을 기록하면서 최악의 제구를 보였다. 볼넷이 빌미가 되어



이준영

준영, 임기준 세 명의 좌완이 생존해 있다. 심동섭, 임기준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게 아쉽지만 이준영의 묵묵한 활약이 반갑다.

이준영은 올 시즌 11경기에 나와 16.1이닝 20피안타(4피홈런) 11볼넷 6탈삼진 15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3연투로 볼펜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지난 1일 지크가 일찍 무너졌던 넥센전에서는 4이닝 동안 마운드에 올라 뒷심 싸움의 발판을 놓기도 했다.

지난해 어깨 부상으로 1군 마운드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이준영은 "다른 좌완들에 비하며 체구도 작은 편이라 자신있게 공을 던지려고 한다. 1군에서 경험을 쌓을수록 확실한 제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카운트 잘 잡아놓고 실투로 나쁜 결과가 많이 나왔다. 이 부분 잘 고민하고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직까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KIA의 좌완 군단. 퓨처스 무대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또 다른 좌완이 있다.

지난 5월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손동욱이 퓨처스 10경기에서 14.1이닝을 3실점으로 막으며 1.88의 평균자책점으로 1홀드 3세이브를 기록하고 있다. 볼넷은 7개, 탈삼진은 10개. 거칠었던 투구폼을 가다듬은 손동욱은 스피드보다는 제구에 초점을 맞춰 1군 무대를 두드리고 있다.

경기수로는 이미 반환점을 돈 2016시즌. 남은 시즌에서 KIA가 좌완 고민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KIA의 1군 볼펜에서는 심동섭, 이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1개월만에...류현진 8일 ML 복귀

샌디에이고전 선발

미국프로야구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좌완 류현진이 미국 서부시간 7일 (한국 시간 8일 오전 11시 10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해 21개월 만에 빅리그 복귀전을 치른다.

미국 로버트 다저스 감독은 4일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홈경기를 앞두고 "7일 경기에 류현진을 선발 투수로 내보낸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왼쪽 어깨를 수술해 재활에 몰두해온 류현진은 이로써 2014년 10월 6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 3차전에 선발 등판한 이래 21개월 만에 빅리그 실전에 등판한다. 정규리그로 따지면 2014년 9월 12일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경기 이래 22개월 만이다.

재활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소화한 류현진은 올해 5월 다저스 산하 마이너 리그 싱글 A 랜초쿠카봉가 웨이크스 소

속으로 첫 재활 등판을 시작했다. 이후 싱글 A와 트리플 A를 오가며 실전 감각을 키웠다. 세 차례 재활 등판 후 어깨 통증 재발로 잠시 쉬었다가 지난달 중순 실전 투구를 재개했고, 1일 재활 등판을 모두 마쳤다. 직구 최고구속은 시속 146km까지 끌어올렸다.

류현진은 "빅리그 등판 준비를 잘 해왔다. 제구력 등 크게 나빠진 것은 없다"며 "선발 등판 당일이 와야 복귀하는 느낌을 제대로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류현진은 샌디에이고를 상대로 통산 5경기에 등판해 4승 무패, 평균자책점 0.84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대호, 굵든 체형에 야구 잘하는게 신기"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는 한국에서 온 거포 이대호(34·시애틀 매리너스)의 활약이 흥미롭다.

마이너리그 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치열한 경쟁을 뚫고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들었다. 시즌 개막 이후에는 플래툰 시스템 제약을 이겨내고 5월까지 60경기에서 11홈런과 타율 0.294 등으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메이저리그는 이대호의 이런 배경이나 실력뿐 아니라 독특한 '유형'에도 관심을 보인다.

미국 시애틀 지역지인 '더 뉴스 트리뷴'은 "이대호처럼 크고 굵든 체형을 지녔으면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타자는 메이저리그에서 드물다"라며 호기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이대호가 '신기한 타자'라는 여러 증언을 제시했다.

스카우트 시애틀 감독은 "그는 체형과 성격 등 모든 것이 독특한 선수"라

ML '독특한 타자' 관심



고 말했다. 최근 시애틀과 4연전을 치른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벅 쇼월터 감독도 /연합뉴스

"이대호를 보고 연상되는 타자는 없는 것 같다"며 독특한 타자라는 데 동의했다.

최고의 우타자로 명성을 떨치던 에드거 마르티네스 시애틀 타격코치도 "모르겠다"며 연상되는 타자를 찾지 못했다. 팀 동료인 외야수 세스 스미스는 "그는 특별한 타자다. 그를 지켜보는 것은 즐겁다"고 말했다.

이대호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타석에서 보여주는 커다란 레그 킥(타격직전 다리를 드는 동작)이다. 서비스 감독은 텍사스 레인저스에서 뛰었던 후안 곤살레스와 비슷하지만 "(덩치 큰 타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흔치 않다"고 덧붙였다.

마르티네스 코치는 "스트라이크 카운트에 따라 다리를 높게 들기도 하고, 때로는 더 낮게 들어 올린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